



종합자료실



북카페

## 도서관이 달라졌어요!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마두도서관

1999년에 개관한 마두도서관이 21년 만에 리모델링을 마치고 지난 4월 27일 재개관했다. 공공도서관의 낡은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해 칸막이 좌석으로 꽉 찼던 열람실을 없애고 개방형 독서 공간을 대폭 늘렸다. 복합 문화공간으로 단장한 마두도서관을 찾아가 봤다.

글, 사진 김민채

### 개관 21년 만의 리모델링, 독서와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열람실이 많아 퇴근 후나 주말에 종종 갔던 마두도서관이 1년 가까이 문을 닫았다. 리모델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을 닫은 것이지만, 아쉬움이 많았다.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관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말에 마두도서관을 찾았다.

외관은 예전과 특별히 달라진 점이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런데 정문으로 들어서자마자 대출반납 데스크가 환하게 맞이하며 설레게 한다. 원목과 화이트톤으로 화사하고 따뜻한 느낌이다.

1층 <책이음>으로 들어갔다. 원목 느낌의 긴 테이블과 고급스러우면서도 세련돼 보이는 의자들을 보니 앉아서 신문과 잡지들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은 <어린이자료실>을 둘러봤다. 예전에는 지하에 있어 별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열람실이 있던 자리에 알록달록 컬러풀한 색으로 단장한 어린이자료실이 마음을 확 잡아당긴다. 우리 애들은 벌써 자라서 이용할 수는 없지만, 어린이들이 있는 가족은 같이 와서 책도 읽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1층밖에 둘러보지 않았는데도 마두도서관의 엄청난 변화에 흥분감마저 들었다.

<종합자료실>은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기대로 2층에 들어서자 '요즘 이 책'이라는 문구로 전시코너가 보이고 블랙톤과 모던한 분위기의 종합자료실이 눈에 들어온다. 곳곳에 있는 도서 전시와 책 진열이 어느 대형서점 못지않게 수준이 높아 보이고,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진다. '나를 읽어 주세요'라며 책들이 손짓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새로 들어온 책 코너는 지나가다 가벼운 마음으로 책을 훑어 보며 고를 수 있게 스탠드테이블로 돼 있었다. 채광이 들어오는 창가 쪽 바테이블과 편안해 보이는 의자들, 이런 곳에서 책을 읽을 수 있다니 감탄이 절로 나온다.

3층으로 올라갔다. '마음산책'이라니! 문구부터 벌써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다. 3층은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으로 신비스럽고 환상의 공간으로 들어선 것처럼 느껴진다. '종이약국'은 내가 아프면 사서가 정성스럽게 책 처방을 해 줘서 나를 낫게 해주고 위로해 줄 것처럼 따뜻한 마음이 든다. 새로 들어온 책과 우리동네출판사 서가 사이의 개인 스탠드가 있는 긴 테이블과 의자는 사진으로만 봤던 외국 의 멋진 도서관으로 착각할 정도로 세련되고 감성적인 인테리어가 인상적이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니 <미디어창작실>이 새롭다. 살짝 들어가 보니



종합자료실

창의적 공간답게 컬러풀한 색의 벽이 이곳에서는 창작의 욕구가 절로 샘솟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오늘, 책 읽기 좋은 날' 이쁜 문구와 함께 포토존에서 멋지게 사진 한 장을 찍었다. 도서관 빈 곳마다 놓여 있는 특색 있고 편안해 보이는 의자와 테이블이 인상 깊다. 어느 곳에서건 책도 읽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지하 통로를 따라 북카페로 가니 요즘 유행하는 스타디카페 못지않게 세련되고 편안한 느낌으로 나를 반기는 것 같다.

### 도서관 이용자를 생각하는 마음 전해져



보는 내내 감탄의 연속이었던 마두도서관, 1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자료실이나 휴게 공간 곳곳에서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대로 전해진다. 열람실 칸막이 속에서 나만의 공간을 좋아했던 나는 이렇게 오픈형 테이블 공간에 매료되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르른 봄의 향기를 물씬 느끼며 '마음산책'에서 고른 책 한 권을 읽고 왔다. 집과 거리는 좀 있지만, 퇴근 후에도 자주 들르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멋지게 탈바꿈할지는 상상도 못 했는데 정말 기대 이상이다. 도서관 하면 공부하는 열람실이 먼저 떠올랐는데, 이제는 책 읽고 싶은 공간이 많아서 갈 때마다 장소를 바꿔가며 도서관 곳곳을 만끽하고 싶어진다.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내 마음에 쏙 들어온 마두도서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힐링 공간이 될 것 같다. 📖

#### 고양시립마두도서관

위치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55

운영시간 평일 09:00~22:00, 주말 09:00~18:00

문의 031-8075-9067